



강진 김영일



고홍 한윤섭



곡성 김광희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여수 김석철

영광군, 인구유출 줄고 출생아수 78명 늘었다

2017년 5월 이후 23개월 만에 출생아수와 사망자수 같아져



만으로 감소한 지자체는 영광군 94명이다.

영광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월 1일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과 신생아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3,000만원, 최고 3,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해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낸임 부부 시술 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외에 군비를 대폭 확대 지원하고 정관·난관 복원수술비도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 1~4월 전라남도 시군별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순천, 나주 두 곳 뿐이고 군 단위에서는 영광군이 87명으로 인구 감소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 인구가 100명 미

동일하여 자연감소인구 제로를 달성하였다. 2014년 이후 출생아수가 사망자수 보다 많았던 달은 2014년 6월, 2017년 5월 두 달 뿐으로 출생아수와 사망자수가 같아진 것은 23개월 만이다.

지난 1~4월 전라남도 시군별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순천, 나주 두 곳 뿐이고 군 단위에서는 영광군이 87명으로 인구 감소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 인구가 100명 미

영광=서희권 기자

순천시, 2019 제2회 추경 예산 1조 3404억원 편성

순천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67억원이 증가한 1조 340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506억원, 특별회계는 1898억원이다.

시는 일자리 사업과 미세먼지 해소대책 등 정주환경 개선 중심의 경제 활동에 역점을 두고 특히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반려나무숲 조성 등 천만그루나무심기, 시내버스 공기청정 필터 설치 등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 순천시 도시재생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민간주도 행복마을 만들기 MOU

고흥군이 도시민 인구유입을 위한 행복 보금자리 마련과 지역 주민과 화합을 위해 민간회사와 손을 잡았다.

최근 고흥군은 팔영신홀에서 모던리아테크, 우드엔(주)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곳, 고흥!' 행복마을 만들기 민·관 협약식을 가졌다.

민·관 협약으로 동강변 한천리 일대에 32가구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모던리아테크(대표 박준행)와 포두면 상포리 등지에 80가구의 예술인 마을을 조성할 우드엔(대표 정용우)은 고흥군과 도시민 인구유입에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우드엔(주) 정용우 대표는 "문화 예술인이 살고 싶은 고흥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앞으로 예술인 축제가 열리고 국제 교류를 통해 예술인 유학생이 찾는 행복고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신속처리 등 인구유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민간회사는 정주여건 조성으로 도시민 유치와 안정적 정착, 마을주

고흥=한윤섭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넓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동3길 2(전남도청 옆)



순천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순천시는 정부(행정안전부)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지난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등 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 하는 제도이다.

시는 소방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금년 8월부터 승용 차기준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됨

에 따라 소방시설 370개소의 경계석 및 노면 등에 '적색표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전표지 설치 공사를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들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 교통 및 버스정보 전광판, 현수막, 홍보전단지, SNS 등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벌행할 예정이다.

순천시 교통과 김재빈 과장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신고제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문체부 주관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 공모 선정

관광플랫폼 및 협력 네트워크로 지역관광 공유기반 구축

광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관광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발전 공유기반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5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5억 원을 투자해 올해 안으로 관광협업센터 설계를 공모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마동 버스터미널 부근 광양시 관광안내소 부지에 건립하는 '관광협업센터'에는 관광안내소 기능에 지역특산품 판매 기능을 추가

등 지역관광 거점지와 연계 편의성 등의 관광수용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시는 종합관광 안내체계 구축을 위해 관광안내소를 운영해 왔지만 관광정보 획득 채널이 다양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맞은 플랫폼 구축과 지역관광 협업 체계화에는 한계가 따랐다.

이번 사업으로 광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적화된 여행 정보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광양관광협의회, 관광누리협의회, 지역관광사업 구성원에게 안정적인 협업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구례군, 강정숙 명인과 함께하는 '孝국악 한마당' 개최



오는 19일 섬진아트홀

구례군은 오는 19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섬진아트홀에서 강정숙 명인과 함께하는 '孝국악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신조 및 병창 보유자인 강정숙 명인의 주관으로 다양한 프

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국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큰 호응이 기대되고 있다.

강정숙 명인의 서공 철류 가야금

신조로 화려

한 서민을 여는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국악인들의 가야금병창과 관음무, 남도민요 '유자백이',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이리링', 칭국 '화초장', 부포놀음(호남 여성농악) 등 화려한 프로그램이 가득 차 있다.

또한 장구의 신으로 유명한 가수 박서진도 특별 출연해 더욱 흥을 돋

을 예정이다.

특히 기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가족들은 공연을 보며 나들이를 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사)가야금 병창보존회(이사장 강정숙)는 "동편제 관소리의 본고장이자 가야금 명인 서공철 선생님의 고향인 구례군에서 공연을 열게 되어 영광이다"며 "기정의 달을 맞아 효의 정신을 되새기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담은 국악 한마당을 준비했으니, 모두 함께 참석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공연을 관람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경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법 안내